

제3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여가와 사회교육**

**여가와 사회교육**  
장진호/경희대 교수

청소년의 여가와 사회교육  
차경수/서울대 교수

주부의 여가와 사회교육  
권영자/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직장인의 여가와 사회교육  
임번장/서울대 교수

노인의 여가와 사회교육  
김동일/이화여대 교수



# 餘暇와 社會教育

張 眞 鎬

경희대 교수

사회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왔으나, 여가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다지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오지 못한 감이 있다. 여가문제가 점점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리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사회교육과의 연관성에서의 여가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연구 영역이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가란 말속에는 시간이나 활동이나 오락 등의 상식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나, 오늘의 여가 개념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면이 있다. 현대사회 변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욕구와 감각, 삶의 철학과 그 실현, 또는 생활의 질과 학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 1. 現代 餘暇의 概念과 問題性

### (1) 現代餘暇의 性格

여가는 모든 시기에, 그리고 모든 문화 속에 있어왔다는 생각도 있으나, 현대 여가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즉, 기계가 발명된 이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9세기까지는 사전에 자유시간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말은 없었다고 한다.<sup>1)</sup> 오늘날은 고도의 기술과 기계가 발명되면서 더 적은 노력으로서도 보다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 시간을 점차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인은

산업화의 가속화 과정 속에서 또는 탈공업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즉 증대되는 자유시간과 자기만의 해방된 시간의 처리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증대되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과 더불어 다른 하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노동인구의 유희시간의 처리문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여가·교육·가치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념을 뒤바꾸어 놓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고 있던 노동 중심의 생활방식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여가 중심의 생활태도를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생활로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현대인은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여, 일은 구속된 시간으로 일에서 놓이는 시간은 자유로운 자기 시간으로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서 보면, “여가는 자유롭고 한가한(점유되지 않은)시간”으로 기술되어 있다. 오늘에 와서는 여가라는 말보다 본가(本暇)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 (2) 餘暇의 概念

여가의 유형이나 개념 정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고전적·사회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견해가 있는가 하면, 포괄적·상관적으로 본 생각이 있고, 제도적·치료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에 대해 여가의 부정적 면을 도덕적으로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여가 개념의 다양성은 각기 보는 주안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현대인의 역할의 다양성에도 기인하는 것이다.<sup>2)</sup> 여가의 의미를 현대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오류를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한다.

### 1) 勞動과 自由時間

여가를 시간 개념으로 볼 때 노동에서 풀려난 자유시간을 의미하게 된다. 뒤마즈디에는 일상적인 모든 일에서 풀려난 자기자신의 성취를 위한 순수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노동과 가족의무,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임무에서 풀

려난 사사로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여가시간을 일과후, 주말, 년말 혹은 휴일, 그리고 생의 주기에서는 은퇴 후로 보고 있다.<sup>3)</sup>

그런데 노동과 자유시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여가 집단의 문제와, 둘째는 여가 시간의 질적인 문제이다.

첫째는 일과 시간을 전제로 볼 때에는 농민이나 노무자와 같이 자유시간이 없거나 제한된 집단이 있고, 예술가 작가 등 일정한 일과의 매임에서 벗어난 많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소유한 집단이 있으며, 일상적인 직업 생활 속에서 자유시간이 노동의 단축 효과로 인해 신장되어 가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일 때문에 자유시간을 얻을 수 없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마음대로 자유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층이 있고, 일을 하면서도 직업적인 일과 구별된 자기만의 시간을 지어가는 층이 있으며, 게을러서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층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가의 창출 요소 속에 많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고려된다. 예컨대 장기 병원 입원자나 실직자들의 시간은 자유시간이라기보다 강요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 시간이다. 돌아갈 직업이 없다고 하면, 휴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둘째 문제인 시간의 질적 이해에 직면하게 된다. 여가는 어떤 집단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직접적·간접적인 관심사요, 오늘의 문제거리이다. 참 여가는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되고, 일상적인 업무의 짐에서 풀려 나와야 하는 동시에 휴식과 사색과 창조적인 경험<sup>4)</sup> 등을 즐기며 자기를 성취시키고 자기완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휴식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주말이나 휴가가 도리어 짜증스럽고, 불행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반면에 일하는 시간이 즐겁고 활기에 차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노동과 여가 시간을 이분화시켜 보는 기계적 해석으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노동 형태가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가운데 인간성 소외의 비판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보수에만 연결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창의적 의미를 발견하고 즐기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가는 형식적이요, 양적인 시간 개념이나 노동과의 분리 현상 속에서만 고려될 수 없는 철학적·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다.

## 2) 마음의 狀態

우리는 흔히 여가는 자유시간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여가가 자유시간과 동일 개념일 수는 없다. 물론 자유시간에 여가활동이 이루어 질 수는 있으나 여가가 비자유시간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유시간은 명사적 개념인데 반해 “자유함”은 동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명사인데 비해 “여가상태”는 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의 명사적 개념은 「소유」의 뜻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뒤의 동사적 개념속엔 「존재」의 상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가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와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여가의 삶이 풍부해질 수 없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엄청난 「소유」의 혁명시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가치가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 소유욕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서 무제한의 욕심으로 확대되어 가기 쉽다. 그리고 극단적인 소유관념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이며 양적 가치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존재」 개념은 인격적 삶의 가치를 우선한다. 무엇을 소유할까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적 물음을 앞세우게 된다. 소유한 물건에 가치를 두기 보다 그 소유물을 인격성에 연결시켜 가치의 우열을 매기는 통합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생각에선 삶 자체가 목적이 된다.

여가에 대한 소유와 존재의 의미도 이런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여가는 소유하기 보다 여가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여가를 즐기는 마음의 상태는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이 평온하다고 하면 문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많은 대중여가의 홍수 속에 휩쓸려 가며 여가활동을 소유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인간성은 소외시키고 있는 대중화현상은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대중문화는 나를 객체화시키고 익명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중오락 속에서는 내가 주체적 자신을 경험하는 면이 소홀히 되어 간다.

이런 면에서 여가는 노동상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동시에, 자유시간 속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여가를 자기의 삶의 내용 속에 바로 흡수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가가 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여가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일에서 풀린 자유시간

을 중요시하지 않는 견해는 아닌 것이다.

### 3) 삶의 人間化

일이나 여가를 분리해서 단독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한틀 속에 포함시켜서 볼 때, 이 둘 「삶」이라는 전체적 구조 속의 연관된 생활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을 신성시하고 여가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나, 노동은 남의 것이고 여가는 내 것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척도는 분명히 이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그리고 노동과 분리된 여가의 소유개념도 우리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다면적인 성격 특징들이 있다. 그 속에는 노동과 땀흘림에서 오는 만족감도 있고, 사색과 창작과 성취감도 있고 배움과 놀이의 즐거움도 있다. 노동시간의 작업내용과 여가 활동의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하는 사람과 놀이하는 사람은 동일인이다. 한 사람의 생활내용이요, 삶의 발산이요, 살아 있는 리듬의 표현이다. 따라서 「삶의 인간화」란 뜻은 부분적으로는 노동과 여가를 인간화하여야 한다는 뜻이 내포된 말이다. 여가를 인간화시킴에는 몇 가지 사실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 ① 한국인의 여가유형이나 여가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한국의 사회발전 단계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② 생의 주기를 통하여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과 여가의 태도, 습관, 결단력, 가치판단, 선택능력, 주어진 상황의 지각과 적응성, 생활주기에 따른 발달성업 등과 평생학습의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 ③ 여가시간을 소유하므로 여가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가 삶의 질을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과 권태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한 삶의 갈증과 창조적 활력소가 함께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력적 요소를 터뜨려 주고 삶의 리듬을 회생시켜 주는 일은 여가를 통한 삶의 인간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3)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餘暇의 問題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여가문제를 사회교육과

의 관계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는 분리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어느쪽도 무시하거나 등한히 생각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일과 여가는 한쪽으로서 인간의 삶의 현실이요, 욕구의 표현이다.

둘째, 현대기술 산업사회에서 노동만으로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 갈 수 없다. 현대인의 노동형태에서는 인격의 결핍 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여기에서 조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가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셋째, 현대인의 욕구가 다양하고 사회문화적인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에 와서는 자유로운 시간의 연장을 바라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시간의 신장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욕구이지만 자유시간의 신장이 곧 여가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여가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문제이다.

넷째, 산업사회의 물량적이고 시장지향적인 편중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와 정서적 품성과 개성적 다양성 속에 인격의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창조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가를 통하여 대중매물적 추상적 개체로부터 주체적 자아로 돌아올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바른 위치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가와 놀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놀이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지어갈 수 있다. 이 양면은 인간성과 사회성의 회복을 뜻하기도 한다.

일곱째, 여가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임으로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대인은 여가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있어서 다같이 강조되어야 할 사실이다.

여덟째, 여가발달의 문제는 또한 사회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여가문제는 국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가의 국민교육적인 기능이다.



## 2. 餘暇와 社會教育의 問題

### (1) 社會教育의 뜻

여가의 교육화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비단 사회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학교교육 등 평생교육의 틀 속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여가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더욱 절실하다.

성인교육이나 노인교육 등의 용어는 비교적 그 영역이나 개념규정이 단순한 데 비해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교육의 포괄적 개념은 그리 단순치가 않다. 이 항목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는 사회교육의 뜻을 살피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다음의 정의는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성격을 보편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

사회교육은 학교의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조직적인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한다. 즉 사회교육은 의무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정규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일반성인들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청소년성인교육(education for adult and youth)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5)</sup>

### (2) 餘暇와 社會教育의 공통성

여가와 사회교육의 만남은 학교의 어원이 헬라어인 「스콜레」에서 연유된 것으로도 쉽게 짐작이 간다. 여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교육이다. 그런데 사회교육을 위의 정의에서 본 보와 같이 보다 많은 일과 관계지어진 대상층의 여가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 영역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가와 사회교육은 그 주제를 인간에 두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가와 사회교육은 그 주어진 시간이나 만들어 가는 내용이나 활동의 장이 고정되지 않고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사회교육이나 여가는 편협하고 정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

친 광범한 삶의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만족하고 유익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기능을 터득함으로써 각 개인이 부단히 자기를 계발해 가야 한다. 이는 배움은 여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여가의 상태는 배움으로 지어지는 상관적 관계를 이룬다.

여가와 교육은 다같이 개인적 책임아래 이뤄지는 사항들이다. 즉 이 두 사실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고, 기회를 포착해 가야 한다. 이 두 사실에는 개인의 사고와 판단력, 능력과 실천력, 그리고 흥미와 동기화를 필요로 한다. 즉, 이 두 영역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창조적 활동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브라이트빌이 지적한 대로 “교육과 여가는 함께 연결되면서 자유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인류를 가능한 대로 최고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양익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 (3) 制度的 面에서의 基本問題

여가와 사회교육을 생각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1항에서 논의해 온바 대로 여가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예를 덧붙이면 가정주부는 일정 직업이나 노동에서 풀려난 일정한 자유시간을 규정하기 어렵다. 가사란 돌발적인 일의 연속이요, 쉬려면 만사를 제치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의 여가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이때의 여가 선택은 그 주부의 상황판단과 여가 인식 문제에 의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인 문제 외에도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문제가 야기된다.

즉, 직업은 가지고 있으나 여가 과부족층과 여가 과잉층이 있는가 하면, 실업자 등과 같이 강요된 무노동·무여가층 등, 이 밖에도 여러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층이 여가와 교육의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건들이 있다. 그것은 시간과 기회와 돈으로 볼 수 있다.

노동형태와 이들 요소들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막노동이나 일반직 종사자에게는 여가 시간과 돈이 과부족 상태이다. 그런데 전문직 종사자가 알맞는 자유시간과 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 기회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세 요소는 개인의 여가인식으로 채워지기 힘든 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요소는 다분히 제도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순환의 원리가 이에도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 없으니 여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여가시간이 없으니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이면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사회교육의 정책적 측면이다.

여가시간은 없는 자에게는 만들어 가야 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교육의 현실은 전자를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가층만을 고려하는 사회가치로 교육을 보기 쉽다. 절대 빈곤이란 말에 부수되는 말이 여가와 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문제는 광범한 계층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도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평생교육에서 즐겨 쓰는 슬로건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사회의 이상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회교육의 원리이기도 하다.

“언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노년에라도 정식학교에 취학할 수 있고,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사회기관을 이용해 배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디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학교나 공장이나 어디서든지 배움의 환경이 지어져서 불편 없이 배움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은 스스로의 자율적 학습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매체학습, 사회관계를 통한 상호학습이나 또는 연합학습 등 다양한 창의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와 시설과 도구와 정보를 다양화하고 평준화함으로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학습의 기회 확대는 곧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체 중에서도 이와 같은데 착안하여 기업 내 사회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 (4) 餘暇의 教育化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산업사회라고도 하고, 기술사회라고도 하고, 대중사회라고도 한다. 이 세 특성들이 융합된 복합사회속에 순응하면서도 자기를 찾아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여가의 교육화는 여가의 인간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삶 그 자체가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여가의 인간화 작업을 사회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까.

첫째로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현대인은 ‘혼자’, ‘함께’ 그리고 ‘휩쓸려’ 사는 시간과 방법과 슬기를 익힐 필요가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독자적·개성적인 세계를 지녀갈 줄 아는 지혜의 삶을 이룸이고, 함께 사는 삶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협동하며 살 줄 아는 태도를 말함이며, 휩쓸리는 삶은 대중사회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 문화에 소외됨이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대사회는 기계의 바퀴처럼 짜여진 구조 속에서 자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도 소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여기에서 행동주의적 생활관성에 젖은 젊은이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되면 도리어 지루하여 권태 속에 정서가 흐트러지기도 한다. 오늘의 사회교육은 여가시간을 홀로 의미 있게 지내는 사색과 명상과 독서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현대는 내면적 정신세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를 회구하게 되기 때문에 욕망의 제어 장치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선 결코 행복한 여가상태가 지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삶을 살 줄 아는 주체들이 여가를 함께 공유하는 슬기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이해하고, 함께 일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여가 생활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은 평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에서처럼 교사와 학생간에 권위의 위계 질서가 없다. 수평선상에서 이뤄지는 배움의 관계이다. 서로 도움을 주며,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교환해 가는 매체의 역할을 하기도 되는 상호교육의 관계이다.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밀려가면서 대중소비자의 한 구성체로서 가치를 균해가기 쉽다. 현대 대중사회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것은 사회변동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이 대중문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교육은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여가를 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집단은 어울려 대중사회에 휩쓸려 가면서도 대중문화의 선별훈련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교육은 대중상황 속에서도 개인으로서 자기를 의식하게 하는 동시에 공동체로 그들의 운명을 결단해 가는 삶의 슬기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휩쓸려 가는 상황 속에서는 시간과 돈과 물자와 즐거움을 선별할 줄 아는 능력과 여가내용을 선택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수반되지 않을 때 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여가의 교육화는 위에서 논의한 바 계층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사회

정책과 제도적으로 대처되어야 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적 계몽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문화 운동 등으로 적극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가의 교육화는 인간다운 문화 속에서 사회화시키는 일이다. 여가시간이 다 인간화에 도움을 주거나 자기실현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독서가 다교육 매체로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교육은 인간다운 문화에로 유도하는 기회의 조성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전통적·창조적인 문화재에 접하게 하고, 바람직하고 진취적인 인간상을 만나게 하고, 역사감각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나, 창조적 독성의 선택 능력을 기르고, 서로를 즐겁게 하는 놀이를 통해 예의와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배워 가는 등은 인간다운 문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한 국면이다.

넷째로 현대인의 긴장된 생활 리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취미와 오락을 교육적으로 편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여가의 교육화 작업이다. 개인오락, 정적·관조적인 오락과 동적·참여적인 오락 혹은 여행과 창작 등은 중요한 여가의 프로그램 개발 영역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민족에게 예능이나 스포츠 등을 대중의 것으로서 보편화시키는 교육적 구상은 사회기풍을 건전하게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일이다.<sup>7)</sup>

다섯째는 여가와 사회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외국에서 보면 공원마다 전문적인 여가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사회교육 기관에는 반드시 성인교육 전문가가 지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체에서 사회교육 전공자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미국대학에는 학부에 레크리에이션 전공학과와 공원관리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럿 있다.

여가문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가와 사회교육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높이기 위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양측면이다. 따라서 여가와 사회교육은 전체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 
- 1) John Neulinger, To Leisure-An Introduction(Boston ; Allynand Bacon, Inc., 1981), p. 58.
  - 2) 여가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여러 견해는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서울 : 대은출판사, 1985), 8장 「현대여가와 사회교육」 참조.
  - 3) Neulinger, op. cit., pp. 27~28.
  - 4) C. K. Brightbill and T. A. Mobley, Educating for Leisure-Centerd Living (New York : John willey & Sons, 1977), p. 8.
  - 5) 黃宗建, 사회교육제도의 비교연구(대구 : 계명대학교 지역사회교육연구소, 1980), p. 17.
  - 6) Brightbill, op. cit., p. 3.
  - 7) 이상은 장진호, 위의 책 pp. 188~191에서 인용 요약하였음.